

고주(gozo)한 브라질 | 日 축구사이트 '사커킹'이 뽑은 월드컵 16강 열광선수들
('즐거움'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호날두·에르난데스...바라만 봐도 흐뭇



2014브라질월드컵의 최고 '꽃미남'은 누구일까. 몸부터 남다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1), 훈남 포스의 다비드 실바(스페인·2), 꽃미남 느낌 물씬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멕시코·3) 등이 뽑힌 가운데 한국의 이용(4)도 외모를 인정받았다.



스페인·2, 멕시코·3, 한국·4

실바·블린트·드뷔시·마르키시오 등 몸 좋고 잘 생긴 자체발광 선수 선정 아시아선 한국 이용·일 우치다 인증 골키퍼 중에선 로메로·노이어 뽑혀

월드컵 개막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남자 친구가 이해되지 않는 여성은 한 달 내내 독수공방을 해야 할까. 남자친구와 함께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오프사이드', '더블 볼란치' 같은 어려운 축구용어는 필요 없다. 축구가 아니라 선수에 집중하는 관전법이 때문이다. 특히 잘 생기고, 잘 빠진 '꽃미남' 선수에 꽂히면 '남친보다 축구'가 될지도 모른다. 애국심으로 보는 한국축구를 뛰어넘어 글로벌

발축구로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하다.

●최고의 월드컵 '열광' 선수는 누구?

일본의 축구전문사이트 사커킹은 2014브라질월드컵을 맞아 꽃미남 선수 16장을 뽑았다. 트위터에서 팬투표를 진행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강 열광'을 선정한다. 11일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데, 브라질에서 외모로 '자체 발광'하는 호날두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다비드 실바(스페인),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멕시코), 달레이 블린트(네덜란드), 오스카(브라질), 아담 랄라나(잉글랜드), 마티유 드뷔시(프랑스), 케빈 미랄라스(벨기에),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이탈리아) 등이 얼굴도

잘 생기고, 몸도 좋은 선수로 선발됐다. 골키퍼 중에선 세르히오 로메로(아르헨티나), 마누엘 노이어(독일) 등 2명이 뽑혔다. 아시아권 선수로는 한국의 이용과 일본의 우치다 아쓰토가 열광 인증을 받았다.

흑인선수 후보도 3명이 나왔다. 에콰도르의 가브리엘 아길리에르는 강인한 남성적 외모가 돋보인다. 그러나 빅터 모세스(나이지리아), 디디에 드록바(코트디부아르)는 "도대체 어딜 봐서 열광인지?"하고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

●중간 투표 결과는?

선수는 결국 축구를 잘 해야 잘 생겨 보이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수비수 이용이 포르투갈의 월드컵스타 호날두와 만나 조만 탈락한 것은 불운이었다. 스페인

미드필더 실바, 멕시코 포워드 에르난데스는 순항 중이다. 모세스와 드록바는 '이번 없이' 이탈리아·프랑스세에 밀려 1라운드로 탈락했다. 골키퍼 2명은 모두 16강을 통과했다. 일본 사이트인 만큼 우치다는 비백인선수로 유일하게 열광 8강에 올랐다.

여자테니스스타 안나 쿠르니코바(러시아)는 미모로 유명세를 탔으나, 우승을 못 하자 인기몰이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뚱뚱하는 것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월드컵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열광 판도도 요동칠 것이다. 결국 남자의 아름다움과 섹시함은 자기 일에 열중하다 맘에 흠뻑 젖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황당 월드컵



'일부러?' '실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트레이닝센터 화장실에 변기 2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사진 출처 | 안드레아 라노키아 트위터

동보 좌석 첫 등장...비만 증명서 필수 칸막이 없는 변기2개...소치 악몽 재현

●'동보' 전용 월드컵 좌석이 있다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축구광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브라질월드컵 조직위원회가 13일(한국시간) 브라질-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이 열리는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의 전체 좌석 중 1%를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사용자와 덩치 큰 관중을 위해 일반 좌석보다 2배 이상 크게 만든 것이다. FIFA가 별도로 좌석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스스로 '똥통다'고 생각해서는 않을 수 없다. 비만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좌석 구매 전 체질량지수(BMI)가 30을 넘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체검사증을 내고 신청해야 한다.

●브라질월드컵, 소치올림픽의 악몽 재현?

시설 준비 면에서 최악의 올림픽으로 꼽혔던 2014소치 동계올림픽의 악몽이 브라질월드컵에서 재현될 것인가. 이탈리아대표팀 수비수 안드레아 라노키아(인테 밀란)가 한 트레이닝센터 화장실에서 찍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변기 2개가 칸막이 없이 사이좋게 나란히 놓여진 모습이다. 두 사람이 사용하려면 상당히 민망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소치올림픽 때는 화장실 2개의 변기는 물론 수도꼭지에서 녹슨 물이 나오고, 속도 화장실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었다. 브라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개막이 코앞인데 완공되지 않은 경기장이 있다. 선수단 숙소 공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거리에선 월드컵 개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다행히 지하철 노조 파업은 철회됐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7

"멕시코 요리처럼 못 생기고... 작고...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월드컵 트로피"

미 USA투데이 스포츠, 이색 주장 화제



축구를 즐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매불망 그리는 월드컵. 그런데 이 월드컵이 '최악의 트로피'라는 이색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USA투데이 스포츠는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32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영예'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트로피'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드립'과 다름없는 월드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월드컵은 못 생겼다(ugly)! 월드컵은 확대해서 보면 디테일이 몽개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때체는 월드컵의 생김새를 두고 '거리 트럭에서 파는 부리토(토르티야에 고기 등을 넣어 만든 멕시코 요리)처럼 생겼다'고 비아냥댔다.

●너무 작다(small)! 월드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세위 높으면 37cm 정도다. 어지간한 2류 리그 우승트로피도 이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이 진부하다(boring)! 월드컵의 공식명칭은 'FIFA 월드컵'이다. 이 얼마나 변변치 않은 이름이란 말인가.

●전통이 없다!
원래 월드컵 우승트로피의 이름은 '줄리메컵'이었다. 초대 대회였던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부터 1970년 멕시코월드컵까지 사용됐다. 브라질이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규정에 따라 브라질의 영구보관물이 됐지만, 1983년 황당하게도 도난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의 월드컵은 그래서 전통이 없다.

●전관예우(?)가 없다!
월드컵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는 이전 우승 국가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1974년 이후만 있다.

●우승했다 복제품을 준다!
우승국은 월드컵 복제품을 받는다. 번쩍거리는 황금빛이지만, 사실은 도금이다. FIFA는 아내에게 큐빅 귀걸이를 선물하고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남편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컵'도 아니다!
슈퍼볼(Super Bowl·미국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하면 볼(bowl·우묵한 그릇)을 준다. 월드컵은 '컵'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작품이지만, 아무리 예술적인 눈으로 봐도 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메시와 한방...월드컵 행운아 아게로, 트위터에 인증샷

외국인 월드컵

미국 티켓 구매 2위...월드컵 숨은 물주 로페즈 불참 헛소문...화려한 무대 계획

●브라질월드컵의 숨은 물주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월드컵을 보기 위해 브라질로 날아간 축구팬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1위는 칠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미국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 미국 CNN에 따르면, 월드컵 티켓 판매회사인 '비아 고고(via gogo)'는 "미국이 칠레에 이어 월드컵 티켓 최대 구매 2위"라고 발표했다. 축구라면 죽고 못 사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을 제친 것이다. 미국은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때만 해도 티켓 구입 비중에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런데 일약 2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내 축구인기가 그만큼 올라갔다 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야구, 농구, 미식축

구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지만 드디어 글로벌 스포츠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비아 고고'를 방문한 미국인 숫자는 430만명, 티켓 판매액은 3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축구만 잘 하면 되는 미국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제니퍼 로페즈 '말 바꾸기 없음!'

미국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의 브라질월드컵 개막식 공연 불참 소문은 결국 헛소문으로 끝났다. 로페즈는 13일(한국시간)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공연에 참석한다. 로페즈의 불참설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제작사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백댄서 출신의 17세 연하 남자친구 캐스퍼 스마트와 이별한 로페즈가 슬픔에 젖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로페즈는 공연을 앞두고 전용기와 호텔 등 시설을 알아 보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전 세계 축구팬들은 그녀의 화려한 무대를 기대하며 된다. 핏볼과 함께 부르는 공식 월드컵 노래 '위 아 원(We Are One)'이 브라질월드컵의 시작을 알린다.

●메시와 함께 방을 쓸 행운아는 누구?

아르헨티나 선수단의 룸메이트 리스트가 공개됐다. 전 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시키는 최고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한 방에서 지내며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동료는 누구일까. 역시 스트라이커인 세르히오 아게로(맨체스터시티)다. 두 사람은 월드컵 기간 동안 싫든 좋든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 아게로는 메시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이 마냥 기쁜 듯하다. 메시와의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에 다수 게재 중이다. 사진 속에서 그의 표정은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아게로와 메시가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7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이끄는 쌍두마차 리오넬 메시(왼쪽)와 세르히오 아게로가 브라질월드컵 기간 동안 룸메이트로 지내게 됐다. 아게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출처 | 세르히오 아게로 트위터